

STORY

몰락 위기에 처했던
스위스 시계와 독일
자동차 산업의 부흥에
흔해빠진 손목시계
스와치가 있었다

'월드 프레스 포토
2016'이 생생하게
증명하는 지구의 민낯
전생애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는 자들이 일할
것 같은 오피스 5

**LIKE A
LONDONER**

런던이 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의 최전선인지
알려드립니다

어른 입맛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아재 입맛' 맛집 24

JOURNAL

슈퍼카들의 엔진 다운사이징,
전시의 본질을 훼손하는
마케팅이라는 오독, 양말은
타이를 대체할 수 있을까,
프루스트를 만화로 옮긴다는
것, 유행의 생로병사, 수염
관리 어떻게 하세요?

OLD & NEW

시그너처 아이템들의
예전 모습 지금 모습

BACKSTAGE

계절이 안겨주는 흥취와
패션 하우스들의 실험과
다가올 트렌드에 대한 예감이
한데 어우러진 톱 브랜드
10개의 백스테이지

**HAT
MAN**

광대승천의 뉘앙스란 이런 것! 피티
위모에서 행거온 멋쟁이 컷들에서 모자
쓴 남자만 뽑아봤다. 이틀처럼만 쓰시라.
멋진 스타일을 구원해줄지니.



SEVEN ELEGANCE

타이 유어 타이를 이끌던 남자, 켄지 카가가 자신만의 브랜드 '세븐 폴드'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의 새로운 행보를 알아보기 위해 빌라 델 꼬레아를 찾았다.

에디터 박정희 포토그래퍼 신규식



당신은 어떻게 패션업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나?

대학 졸업 후 의류 도매업을 시작으로 패션업계에서 처음 일했다. 그 뒤 일을 잠시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1996년 도쿄에 남성 편집매장 '타이 유어 타이'의 오픈 멤버로 참여했다. 그게 나와 타이 유어 타이와 인연을 맺은 계기였다. 이후 대표를 맡으며 사업을 이어간 것이고.

타이 유어 타이에서 나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오랫동안 일본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살았다. 그러면서 훌륭한 장인들을 수없이 만났고 그들에게 영감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제는 나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이 유어 타이에서 일할 때 매장의 대표 아이템인 타이의 품질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에 '세븐 폴드'라는 타이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생산 산업에 직접 뛰어들다 보니 새로운 시각이 생기더라.



'세븐 폴드'는 어떤 브랜드인가? 이름만 들었을 땐 타이 전문 브랜드가 연상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타이 유어 타이 재직 시절 설립한 타이 공장 이름을 그대로 브랜드명으로 사용했다. 원단을 일곱 번 접어 만드는 세븐 폴드 타이의 아름다움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이다. 타이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냐고 반문할지 몰라도, 세븐 폴드 타이에는 남자의 액세서리 중 가장 우아한 정수가 깃들여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타이가 세븐 폴드의 주력 상품이고 스카프, 보타이, 포켓스퀘어, 셔츠 등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성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물론 수미주라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시중에는 많은 타이 브랜드가 있지 않은가. 세븐 폴드만이 지닌 독특한 가치는 무엇일까?

한 분야를 일생 동안 파고든 장인이 만드는 물건은 무엇이든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은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장인들이 사라져가는 추세다. 세븐 폴드를 만든 이유도 장인들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문화를 물려주고 싶어서다. 품질과 생산량, 가격을 조절해 이윤을 많이 남기는 장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가치 있는 타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싶다. 뛰어난 장인이 만드는데 가격도 합리적인 타이가 있다면 소비자에게 그것만큼 반가운 일이 또 있을까?

세븐 폴드의 타이는 어딘가 예스러운 느낌이 있다. 빈티지 원단으로 만든 것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빈티지 패턴을 재해석해 만든 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에 만든 빈티지 원단은 당연히 수량이 적을 테니 그걸로 타이를 만들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우리는 운 좋게도 빈티지 타이 원단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일하고 있다. 그 원단을 참고해서 옛 방식 그대로 오래된 베를 사용해 원단을 직조한다. 또 옛날 영화나 그림, 풍경 등에서 영감을 받아 그 느낌을 살려 원단을 짜고 패턴을 만들기도 한다. 세븐 폴드의 타이가 여느 타이와는 감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세븐 폴드의 아이템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

한국은 기일부터 빌라 델 꼬레아에서 세븐 폴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그 밖에 미국의 바니스 뉴욕, 홍콩의 아모리, 일본의 투모로우랜드와 이세탄 백화점 그리고 한류 백화점, 베이징의 브리오, 이탈리아의 엠브로시 나폴리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당신은 오랜 기간 클래식 남성복 시장에서 일했다. 최근의 남성복은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것 같나?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소재의 옷과 전에 보지 못한 방식의 스타일링이 눈에 많이 띈다. 이를테면 굉장히 화려한 패턴을 걸치거나 스포티한 감성이 있는 옷과 클래식한 재킷을 섞어 입는 남성들이 많아졌다. 최근 이런 트렌드를 보며 나 스스로도 클래식한 스타일이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역시 남성복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멋은 기본을 잘 지킬 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신이 생각하는 남자의 우아함이란?

어떤 특별한 분위기를 품고 있는 것. 마치 걸어 다니며 사람과 마주칠 때 향수 냄새를 느끼듯 진정으로 우아한 남자는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기운을 풍긴다.